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미 프로야구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한 류현진(27)이 볼을 던지고 있다. 류현진은 이날 시즌 8승째를 올렸다. /연합뉴스

류현진, 콜로라도 불방망이에 ‘찬물’…8승

6이닝 1실점 3피안타 6탈삼진

고미 마다 삼진으로 위기 넘겨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사진)이 ‘홈 징크스’를 떨쳐내고 시즌 8승(3패)째를 올렸다.

류현진은 17일 콜로라도 로키스와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동안 안타 3개를 내주고 1실점만 내줬다. 솔로 홈런을 맞긴 했지만 볼넷은 단 한 개만 내줬고, 고미 때 마다 삼진(6개)으로 상대 타자를 돌려세우며 메이저리그 전체 팀 타율 1위 콜로라도 타선을 제압했다.

류현진은 다저스가 3-1로 앞선 6회말

공격 때 타석에서 대타 제이미 로막으로 교체됐다. 다저스 타선이 6회말 2점, 8회말 1점을 뽑고 불펜진이 3이닝을 무실점으로 소화하면서 류현진의 승리를 지켰다.

시즌 초 홈경기에서 부진했던 징크스도 완전히 털어냈다. 류현진은 이날 승리로 5월 27일 신시내티 레즈전(7.1이닝 3피안타 3실점)과 6월 1일 피츠버그 파이리츠전(6이닝 10피안타 2실점)에 이어 홈 3연승을 달렸다. 시즌 평균자책점은 3.33에서 3.18로 낮췄다.

류현진은 1회초 선두타자 찰리 블랙먼을 직구 2개로 1루 땅볼 처리했지만, 브랜던 반스를 볼넷으로 내보냈다.

트로이 톨로위츠키를 119km짜리 느린 커

브로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워 한숨을 돌리는듯했다. 그러나 저스틴 모노가 류현진의 커브를 공략해 우중간을 가르는 큰 타구를 쳐냈다. 타구가 그라운드에 닿고 크게 튀어오르면서 펜스를 넘어갔다. 류현진은 2사 2·3루에서 드루 스타프에게 시속 151km의 빠른 공을 던져 헛스윙 삼진을 끌어냈다.

2회에도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을 선보였다. 2회 선두타자 윌린 로사리오에게 3루수 옆을 뚫는 2루타를 맞았지만 조시 러틀리지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내고, 찰리 컬버스의 타구를 직접 잡아 투수 땅볼 처리했다. 투수 타일러 마ček은 손쉽게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1·2회 위기를 넘긴 류현진은 3회 삼진

하나를 결들이며 공 10개로 이날 첫 삼자 범퇴에 성공했다. 류현진은 2-0으로 앞선 4회에도 모노와 스타프를 외야 뜬공으로 쉽게 잡아냈다. 하지만 로사리오가 볼 카운트 2스트라이크에서 던진 시속 148km짜리 몸쪽 직구를 좌월 솔로포로 연결해 실점을 했다. 류현진의 시즌 5번째 피홈런이다. 그는 7일 콜로라도전부터 3경기 연속 홈런을 허용했지만 더는 실점하지 않았다.

5·6회도 삼자범퇴로 막으며 이닝을 마쳤다. 류현진은 1·2회 투구 수가 총 44개에 이를 정도로 경기 초반 투구 수 조절에 실패했지만, 3회부터 안정감을 찾으며 105개(스트라이크 72개)의 공으로 6이닝을 채웠다. /연합뉴스

윤석민도 해냈다…시즌 3승 성공

시라큐스 치프스전 선발

6이닝 3실점 6탈삼진

윤석민(볼티모어)이 3승에 성공했다. 미국 메이저리그 노포크 타이즈의 윤석민이 17일 시라큐스 치프스(워싱턴 내셔널스 산하)와의 홈경기에서 6이닝 3실점을 기록하며 퀄리티스타트를 끝냈다. 팀이 5-4로 이기면서 승리 투수가 됐다.

6회까지 8개의 공을 던진 윤석민은 60개를 스트라이크 존에 던지며 공격적인 피칭을 했다. 탈삼진 6개를 뽑아냈지만 9경기 연속 피홈런을 허용했다.

출발은 좋지 못했다. 1회 선두타자 엠마누엘 베리슨에게 중전안타를 허용한 윤석민이 볼넷으로 무사 1·2루에 몰렸다. 그러나 견제로 2루 주자를 벤치로 돌려보낸 뒤 삼진과 좌익수 플라이로 실점 없이 위기를 넘겼다.

2회 스티븐 소우자와 브라이언 굿윈을 연속 삼진으로 잡아낸 윤석민은 유격수 땅볼로 세 번째 아웃카운트를 만들었다.

1회 브렛 월러스에 이어 2회 벅 브리튼의 투런포까지 이어지면서 노포크가

5-0으로 앞선 3회초, 월 라임스의 타구가 2루수 코드 벨프스의 글러브를 맞고 흐르면서 2루타가 됐다. 1루수 땅볼에 이어 베리슨을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하며 투 아웃을 만들었지만 잭 웰터스에게 던진 초구가 우측 담장을 넘어가면서 5-2가 됐다.

5회에도 선두타자 라임스에게 좌측 선상을 타고 흐르는 2루타를 허용했다. 직접 베이스 커버를 들어가 1루수 앞 땅볼 타구를 처리했지만 2루수 앞 땅볼 때 3루에 있던 라임스가 홈에 들어왔다.

5-3으로 좁혀진 6회 이번에는 연속 안타를 맞았다. 소우자의 타구가 유격수 깊은 곳으로 향하면서 내야 안타가 됐고, 타일러 무어의 좌전안타가 이어지면서 무사 1·2루. 조나단 솔라노의 땅볼 때 3루수 벅 브리튼이 베이스를 먼저 짚은 뒤 1루로 공을 던져 타자주자까지 잡아냈다.

포수의 실수로 보크까지 범했지만 호세 로자다를 상대로 6번째 탈삼진을 뽑아내며 마운드를 내려왔다.

윤석민의 평균자책점은 5.45가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WC 알제리전 열리는 날, 류현진은 9승 도전

23일 샌디에이고 선발 예정

한국 축구 대표팀이 브라질 월드컵에서 알제리를 상대로 중요한 일전을 치르는 동안, 미국에서 한국 최고의 투수 류현진(27)이 시즌 9승에 도전할 전망이다.

한국은 23일 오전 4시(한국시간) 포르투알레그리 베이라하우 주경기장에서 알제리와 브라질 월드컵 H조 조별예선 2차전을 나선다. 공교롭게 류현진의 다

음 등판 예정일도 23일 오전이다.

류현진의 소속팀 미국 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는 18일과 19일 다저스타디움에서 콜로라도 로키스와 홈경기를 치르고 20일 휴식을 취한다.

이후 21일부터 23일까지 샌디에이고 팻코파크에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원정 3연전을 소화하는데 류현진은 마지막 날인 23일에 등판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K리그 웹진 탄생…매월 셋째주 월요일 발간

홈페이지·SNS 등서 구독

선수 소개·리그 기록 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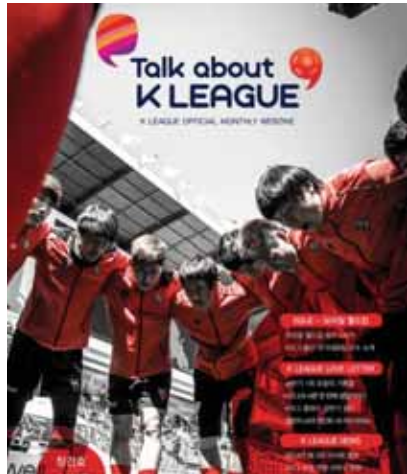
K리그 소식을 손 안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웹진(사진)이 탄생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 K리그의 각종 이슈와 사진 등을 담은 K리그 웹진 ‘Talk about KLEAGUE’를 창간했다.

웹진은 매달 가장 이슈가 되는 K리그 소식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인포그래픽, 의미 있는 K리그 기록을 소개하는 리브레트, 팬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담은 K리그 소식 등으로 구성됐다. 매월 세 번째 월요일 발간될 예정이다.

특히 창간호인 6월호 ISSUE 코너는 월드컵 특집으로 꾸며졌다. 이번 브라질 월드컵 대표선수로 선발된 23인의 태극전사 중 K리그 출신 선수 17명이 K리그에 남긴 기록을 재조명했다. K리그 출신 국가대표 선수들의 활약상은 이번 월드컵의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리브레터란은 ▲K리그 클래식 상반기를 1위로 마무리한 포항스틸러스의 기록 ▲K리그 클래식 상반기 결산 인포그래픽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K리그 챌린지 스타의 이야기로 구성됐다.



이밖에 선수위원회 구성, K리그 클래식 팀 자선경기, K리그 올스타전 등을 다룬 2014년 제 4회 이사회 결과와 스포츠 행정이 양성 프로그램 축구산업아카데미 등 정보도 담겨있다.

웹진은 K리그 공식 홈페이지(www.kleague.com), 페이스북(www.facebook.com/withKLEAGUE), 트위터(@kleague), K리그 공식인증 앱 ‘오늘의 K리그’를 통해 스마트폰과 PC 등 모바일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K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PDF 파일 다운로드 기능도 제공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덕아웃 말·말·말

▲“항의하러 바로 일어났는데 없대요.” 14일 롯데와의 원정 경기에서 옥스프링의 공에 머리를 맞았던 나지완. “옥스프링에게 항의 하려고 맞자마자 바로 일어났는데 마운드에 투수가 없더라”고 웃으며, 올 시즌 선수보호 차원에서 투수가 직구로 타자의 머리를 맞출 경우 경구 없이 바로 퇴장하도록 프로야구 규정이 바뀌었다. 옥스프링은 이 규정에 따라 바로 퇴장 조치됐다. 헬멧이 깨질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았던 나지완은 검진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3할 가까이 돼.”

고민 많은 선동열 감독을 모처럼 웃게 이야기가 있었다. 17일 이효봉 XTM해설위원이 팀타율에 대해 얘기를 꺼내자 선 감독이 이내 “우리가 3할 가까이 된다”고 언급했다. KIA는 앞선 한화·롯데와의 시리즈에서도 56점을 만들어내는 등 화끈한 공격력을 선보이며 팀 타율을 0.29%까지

투구 맞은 나지완 “옥스프링 어디갔어?”

끌어올랐다. 두산(0.307)에 이어 전체 2위. 하지만 여기에 함정은 있다. 팀 평균자책점이 6.23에 이르면서 7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뒤편은 불편해서요.”

투수 박준표와 내야수 강한울이 몸무게를 놓고 다른 고민을 하고 있다. 2년차 투수 박준표(181cm)에게는 체중 감량이 고민. 지난 겨울 웨이트를 통해 몸을 불렀던 박준표의 최근 몸무게는 90kg에 육박한 상태. 덕분에 힘이 많이 불었지만 살이 찌면서 뒤편은 불편하다는 게 박준표의 설명이다. 반면 신인인 강한울(181cm)은 바쁜 시즌을 보내면서 몸무게가 부쩍 줄었다. 69kg까지 나갔던 강한울은 입단 당시 66kg를 기록하면서 올 시즌 프로야구 최경량 선수 타이틀을 차지했다. 여름에 접어들면서 강한울의 몸무게는 63kg까지 줄어들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13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 3회초 1사 상황에서 KIA 나지완이 롯데 선발 옥스프링의 투구에 머리를 맞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20년은 가는데!!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트라이슈머 탑코팅 시공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특허 제10-0497234호 특허 제10-1228195호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탤런트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